쌀 관세율 513% 공식 확정

WTO에 제출한 관세화 내용 원안대로 반영돼… 농식품부 "모든 절차 완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쌀의 수입관세율(513%)을 확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이 관보에 공포됐으며 이로써 쌀의 관세화를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관보에 공포된 쌀 관세화의 주요 내용은 쌀 관련 품목(16개 세번)에 대해 513% 관세율을 적용하고, 저율관세할당물량 40만8,700톤(5% 관세율)은 관세화 이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 등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2014년 9월에 WTO에 제출한 쌀 관세화 내용이 원안대로 반영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 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 차례(1차: 1995~2004, 2차: 2005~2014) 관세화를 유예했으며, 그 대신 일정 물량(저율관세할당물량, TRQ)에 대해 저율 관세(5%)로 수입을 허용해 왔다.

쌀 관세화 과정은 우리나라가 2014년 9월에 20년간(1995~2014)의 관세화 유예를 종료하고 쌀의 관세율을 513%로 설정한 수정양허표를 WTO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우리나라는 WTO의 절차에 따라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5개국(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과 5년간 검증협의를 거친 끝에 우리나라가 제출한 원안대로 513%를 유지했다.

WTO에서는 우리 쌀 관세화의 검증 절차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는 인증서(Certification)를 2020년 1월 24일 발급했으며, 지난 12일 한국의 쌀 관세율(513%) 발효(발효일 : 2021년 1월 5일)를 알리는 문서를 회람했다.

이번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 공포는 WTO의 발효 공표에 따라 국내적으로 쌀 관세화 절차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 공포로 우리 쌀 관세율 513%가 WTO 양허세율로 공식적으로 확정됐으며, 쌀 관세화를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김윤상 기자

온라인으로 선물인심까지 'ON'

내달 5일까지 '거시기장터' 전북으뜸 설명절 명품판매전

도내 568개 제품 최대 2만원 할인 · JB카드 10% 추가 할인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 5일까지 온라인쇼핑몰 '거시기장터'에서 전북으뜸 설명절 명품판매전을 운영한다.

거시기장터 설명절 기획전은 코로나19와 겨울철 한파로 인한 소비위축 해소를 위해 전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전북산 먹거리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할인 행사로 마련됐다.

이번 판매전에는 67개 도내 희망 업체가 참여해, 도내산 한우, 배, 사과, 곶감, 한과, 건강식품 등 총 568개 제품을 선보이며, 전 상품 20%(최대 2만원) 할인한다.

전북은행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10%가 추가로 청구할인된다.

'거시기장터'는 지난해 7월부터 새롭게 단장한 전북도 농특산물 쇼핑몰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비영리 직거래 장터다.

거시기장터는 급변하는 농식품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지난해 모바일 편의성을 강화한 플랫폼으로 개편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쇼핑 수요가 급증하며, 쿠팡 등 메이저 쇼핑몰이 전국적으로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거시기장터'가 전북산 농산물의 비대면 온라인 판매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거리두기로 우리 이웃, 친지, 친구에게 마음을 전할 기회가 줄었다면, 우수한 우리 지역 농산물인 전북 농특산물로 감사의 마음을 실속 있게 전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최 국장은 "이번 기획전으로 코로나19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가와 소비자의 마음이 이어져, 함께 따뜻한 설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량 구매와 입점 문의는 거시기장터 고객센터(070-4176-9299)로 문의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내게 필요한 정보 '여기로'

농협 상호금융, 'MY콕' 서비스 오픈 이벤트 실시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모바일 플랫폼 'NH콕뱅크' 앱에서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간편하게 통합 조회하는 'MY콕'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MY콕' 서비스는 개인 데이터와 공공정보를 결합해 복지·정책자금, 건강정보, 부동산 정보, 귀농·귀촌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고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간 개인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은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MY콕'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공동 인증서를 한번만 제출하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재호 본부장은 "MY콕은 고객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요즘 트렌드에 부합하는 새로운 서비스"라며 "디지털 확산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콕뱅크 등 국내 최고의 간편뱅킹 플랫폼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1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응모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700여명에게 의류관리기, 공기청정기, 온수매트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농·축협 영업점이나 콕뱅크 이벤트 페이지, 스마트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력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외국인근로자 생산성 개선 위한 장치 필요"

중기 경쟁력 강화 위한 외국인력제도 개선 토론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력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중소기업계는 다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무제 확대시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으로 경영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근로자 관련 균형잡힌 제도의 발전을 위한 활발한 토론이 되길 기대하며, 중소기업계도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견인차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윤정현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독일은 신규 채용자의 수습기간을 6개월에서 최장 24개월로 연장하는 하르츠법을 시행하고, 프랑스는 숙련도 및 생산성을 기준으로 연령별 임금지급률을 탄력적으로 적용, 산업경쟁력 개선을 도모했다"며 "언어 및 문화적 관습이 상이한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연장하고,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산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상현 경상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지속적 감소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외국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자가격리 시설을 확충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자들의 발표 이후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도 이루어졌다.

허현도 부산풍력발전부품사업조합 이사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내국인에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숙식비 등을 포함할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내국인보다 더 많아진다"며 "외국인근로자 관련제도에서 오히려 국내근로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현상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대표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이민자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로서 외국인근로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며, 사업주의 일방적 이익 측면이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의 노동권 보장 등 외국인력제도의 전반적 논의와 점검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근로자의 저생산성 문제는 수습기간 보다는 선별장치를 통해 해소하고, 코로나19 영향 등을 감안해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의 비대면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현행 외국인력제도는 유엔행정대상 수상(2011년) 등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맺기도 하였으나, 외국인력의 인권보호와 함께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라는 차원에서 균형잡힌 제도에 대한 요청이 존재해 왔다"며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을 고려, 수습기간을 최소 1~2년으로 부여하고 입국 후 1년간 사업장 변경 제한, 체류기간 중 사업장변경 가능횟수 조정 등 현행 사업장 변경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인원을 최소화했으며 유튜브로 생중계 됐다. 토론회 영상은 유튜브 KBIZ 중소기업중앙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올해 약용작물 종자 33품목 보급

농진청 약용작물종자협의체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 주관으로 운영 중인 약용작물종자협의체는 올해 33품목의 약용작물 종자를 도 농업기술원 등을 통해 보급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보급 품목은 지황, 고삼, 백출, 단삼, 더덕, 도라지, 독활, 둥굴레, 오미자, 작약, 하수오 등이며, 보급량은 종자(씨) 254kg, 종묘(씨모) 22만9,000주, 종근(씨뿌리) 약 12톤이다.

종자 신청은 기관별 공급 작물을 확인한 뒤 지역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한의약진흥원 등으로 직접 전화하면 된다. 기관마다 공급 시기와 공급 대상, 가격(유상·무상), 작물 등이 다르므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www.nihhs.go.kr)에서 미리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도 농업기술원은 해당 지역 주민에게 먼저 공급한다.

약용작물종자협의체는 정부혁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15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협의체는 효율적인 종자 보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마다 품종 육성, 종자 생산량 등을 협의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약용작물에 대한 농가의 관심과 요구사항을 반영해 지난해 보급 품목에 없었던 오미자 종근과 종자, 반하 종묘, 방풍 종자를 추가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장재기 약용작물과장은 "국가가 주관하는 협의체를 통해 약용작물 육성 품종을 농가에게 직접 보급함으로써 국산 품종의 점유율 향상에 기여하겠다"라 "국산 약용작물 종자 공급이 확대돼 나고야의정서 발효 등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수입 작물을 대체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현대차 전주공장

상반기 '사랑의 헌혈캠페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문정훈)은 지난 22일 사내 각 식당 앞에서 2021년 상반기 사랑의 헌혈캠페인을 전개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함께 직원들 출입이 많은 회사 내 각 식당 앞에서 실시한 이번 헌혈캠페인에는 자발적인 참여 행렬이 줄을 이어 성황을 이뤘다.

현대자동차는 긴급한 수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21년째 꾸준히 사랑의 헌혈캠페인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2019년 410명, 2020년 상반기 274명의 직원들이 참여해 따뜻한 생명나눔을 실천했다.

이에 힘입어 공식집계가 시작된 2001년 이후 16년만인 지난 2016년 누계 참여인원 5,000명을 돌파했으며, 2017년부터 작년까지 한 해 평균 250명 이상씩 꾸준히 헌혈에 참여해 누계 6,000명을 돌파했다.

이들 헌혈 참여자 중 상용엔진1부 우경배(남, 53세) 씨는 누계 100회를 돌파함으로써 헌혈유공자 명예장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상용엔진1부 최현록(남, 45세) 씨도 누계 50회를 돌파하며 헌혈유공자 금장을 수상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헌혈을 통한 소중한 생명 나눔에 보다 많은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2~3월 중 3차례 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완주=이중복 기자

"모두가 행복한 은행의 방패가 될 것"

정원호 신임 전북은행 노조위원장 취임

전북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22일 본점 3층 대강당에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임용택 전북은행장, 광주은행 노동조합 이성욱 위원장, JB우리캐피탈 노동조합 윤성일 위원장 및 대의원과 조합원 등 9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49년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및 제 20대 정원호 위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국대회에서는 표창장 수여, 이·취임사를 시작으로 제48년차 활동보고 및 결산보고, 49년차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의 건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지난 12월 치러진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찬반투표 결과 99.2%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정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코로나 펜데믹이라는 전례없는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원호 위원장은 특히 "공정하고 원칙 있는 조직문화 안착과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살맛나는 일터 조성,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 노동조합의 모범이 되어 JB금융지주의 지방금융지주사로서 역할 강화 등의 소임을 다하겠다"며 "'가장 가까이에 강한 힘, JB노동조합, 모두가 행복한, JB전북은행 캐치프레이즈'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지켜낼 전북은행의 방패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내달 14일까지 설맞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할인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도내 43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오는 2월 14일까지 우체국 쇼핑몰에서 설맞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설맞이 할인행사에는 명절 실속상품과 고급선물 등 50여종의 제품이 준비돼 있으며,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품질 좋은 상품을 착한 가격에 제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가능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번 할인행사를 시작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브랜드관에서 SNS를 통한 우수 리뷰 작성 시 경품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며, 카카오 플러스, 인스타 등을 활용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설맞이 할인행사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사회적경제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도민들의 깊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농진청, 26일자 인사 단행

일반직고위공무원 · 과장급 등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 지난 22일 26일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인사 대상자는 일반직고위공무원 2명을 포함한 총 28명이다.

인사 대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일반직고위공무원

〈신규〉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장 박수철

〈승진〉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장 강민구

◇과장급

〈승진〉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농촌환경자원과장 홍석영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농업인안전보건팀장 김경란 ▲국립식량과학원 작물기초기반과장 문중경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장 송연상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도시농업과장 김광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인삼특작이용팀장 김금숙 ▲국립축산과학원 운영지원과장 이한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영양생리팀장 박남건

〈전보〉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이상호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손영상 ▲운영지원과장 이근석 ▲연구정책국 연구운영과장 조용민 ▲연구정책국 연구성과관리과장 최범석 ▲연구정책국 사업기획팀장 방혜선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장 김정화 ▲농촌지원국 식량산업기술팀장 정병우 ▲국립농업과학원 운영지원과장 왕희상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팀장 정충섭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 발효가공식품과장 최지영 ▲국립식량과학원 운영지원과장 김선진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생산기술개발과장 박기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획조정과장 류성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장 최준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인삼과장 김동휘 ▲국립축산과학원 기획조정과장 송금찬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장 김시동 /김윤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